

공학도 입태근 씨

원자핵 공학 전공 살려 저술

“음양오행 이론은 응용과학 기초학문”

“과학자들이 음양오행을 각 분야에서 실증적으로 연구해 업적을 쌓아간다면 우주의 통일장이론이 완성될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음양오행이론과 과학은 과연 연관이 있을까? ‘공학도가 풀이한 최초의 사주과학’이란 부제를 단 <내 사주 내가 푼다>(여시아문의 저자 입태근 47)씨는 “음양오행이론은 천문학, 의학, 생물학, 환경공학, 심리학, 건축학 등 모든 과학에 응용할 수 있는 기초학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음양오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과학실험을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는 저자는 이 책에서 “상대성이론은 음양이론에, 양자역학은 천지인(天地人) 삼원(三元)에 기초한 황극(皇極)이론에 각각 대응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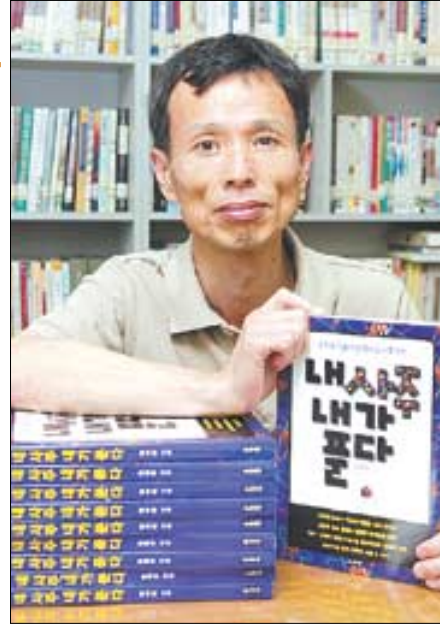
입씨는 이러한 전제 아래 오행의 기본 원리도인 하도(河圖)와 낙서(洛書)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우주의 흐름도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오행의 상생도(相生圖)인 ‘하도’는 수축하는 우주운동의 원리를 제공한다. 하도에 나타난 상생의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한꺼번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우주의 특이점(singularity point)인 ‘블랙홀’(black hole)은 음양운동에 원천적인 힘을 제공하는 에너지원이란 것.

오행의 상극도(相剋圖)인 ‘낙서’는 팽창하는 우주의 설계도로 표현된다. 태초에 물질은 시

‘내 사주 내가 푼다’

입태근 지음
여시아문 / 1만2천원



△인터뷰 자바브로 그래머인 입태근 씨.

적용되고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 그런데 이런 블랙 홀과 화이트 홀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우주공간은 하도-낙서의 원리에 따라 인체의 DNA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작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입씨는 결국 “우주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가장 조화로운 생명체”라고 결론짓는다.

저자는 이밖에 토(土) 지(地) 인(人) 삼재(三才)의 원리와 음양에서 오행이 발생하고 다시 10간(十干) 12지(十二)공간로 발전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사주(四柱)의 구조가 조부모, 부모, 본인인 자신의 4대로 연대책임을 지고 순환하는 것임을 밝히고 독자 스스로 자신의 사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20여년간 음양오행이론을 공부하며 평범한 직장생활을 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자바브로 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블랙홀은 음양 운동에너지 원천

빅뱅이론-로슈원리는 일맥상통

공간도 없던 상태(空)에서 큰 폭발과 뒤이은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빅뱅(big bang)이론’과 낙서의 원리는 일맥상통한다는 해석이다.

입씨는 또한 하도-낙서에서 남쪽과 서쪽에 있는 금(金)과 화(火)가 서로 자리바꿈하는 금화교역(金火交易) 원리를 통해 우주는 4차원의 DNA 유기체 구조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한다. 수축하는 힘이 작용하는 하도의 우주에서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던 우주는 원 홀(worm hole) 블랙홀과 화이트 홀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금화교역이 일어나 낙서의 배열로 수정된다. 화이트 홀(white hole) 블랙홀과 대칭되는 우주의 물질을 내뿜는 세계(世)에서 분출될 때에는 낙서의 원리가



‘백가지 친구이야기’

글·그림 이와타 겐자부로 / 이연숙 옮김
호미 / 8천원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몽클’

몇 년전 일이었습니다. 시 쓰는 후배와 함께 경주 남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선배가 함께 움직였으니 후배가 실수를 하고 선배인 제가 뒷수습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상식과 달리, 제가 훗날 지어준 것을 워낙 잘 지지합니다. 경주 남산에 가서도 일은 제가 저질렀습니다. 지도를 잘못 읽어 그만. 길을 잘못두고 말았던 겁니다. 길을 잃었으니, 헤맬 수밖에요. 참 많이도 걸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안내판을 만났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길을 찾아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리라 생각했는데, 아라. 그게 아니더군요. 너무 해맸던 터라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걸으며 보기에 그리 높지 않고, 산에서 쉽게 구하리라 여겨 물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도 큰 실수였습니다. 날이 무더워 자꾸 목이 마르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후배와 저는 너무 지치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걸기가 힘들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알마나 짐작한 상황이었던지 솔직히,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남산에 올라오셨더랬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물을 부탁했더니, 어린 딸이 가지고 있던 물을 선선히 건네주었습니다. 아, 그때의 맛이었나! 기를 끝에 내린 소나기 덕에 시들어가던 풀들이 소생하는 듯한 기운이 몸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바가지 물의 위력을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와타 겐자부로가 쓰고 그린 <백가지 친구 이야기>가 제게는 꼭 경주 남산에서 마셨던 한 바가지의 물 같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서두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정신이 속, 빠져 있다가 이 책을 읽고,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몽클해졌던 경험이 있었지요. 무슨 책이길래 그러냐고요. 제목대로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 참. 영화 친구를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조폭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기실 우리들의 ‘선배님’들입니다. 지구라는 별에 인간들보다 먼저 살아왔던 그 모든 생명들을 가리킵니다. 눈치 빠른 분은 이 책의 내용을 벌써 짐작하셨겠군요.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마십시오. ‘선배님’ 들고 친구하

기가 쉽지는 않으니깐요. 지은이의 말대로 그것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지만, 경이로운 일입니다. 역시 지은이의 말대로 “그들, 그녀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먼저 속세로 열린 창을 닫고 당신의 영혼으로 가는 문트를 열어놓으십시오. 비로소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가용을 몰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걸어야 하는데,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야만 합니다. 그 때 맨처음 만나는 친구는 펜스레 발로 툭, 차고 싶은 툭입니다. 툭 멍이의 친구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녀석의 친구는 작은 시냇물이고, 시냇물의 친구로는 개구리가 나오죠. 이 책은 우리가 어렸을 적 즐겨했던 놀이인 물 말았기처럼 누구의 친구는 누구고, 그 누구의 친구는 누구라고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기보다는 소리내어 읽는 게 제격인 책입니다. 이런, 이 말은 잘못됐습니다. ‘지은이가 그린 어여쁜 그림들이 들어 있어 소리내어 읽되, 그림 보는 재미

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니까요.

벌레·꽃·새·물고기들과 친구된다면...

생명이란 것들이 친구되는 세상은 참으로 흥겹습니다. 좀 조용하게 있고 싶어도 그냥 놔두지 않지요. 잡자리의 친구는 연못이고, 연못의 친구는 뜰부기이고, 뜰부기의 친구는 갈대 수풀인데, 이 수풀 속에서는 새끼들의 낭랑한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갈대의 친구는 메뚜기인데, 아라 이 녀석 하는 짓 보십시오. 후드득 날갯짓하며 높이 날아오릅니다. 눈 어찌 락히는 녀석이 잠들 무렵에는 친구인 귀뚜라미가 교대를 하지요. 어찌십니까, 조용할 리 없겠지요. 하지만, 이것을 일러 소란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의 친구들이 낮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이 교향곡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주니까요.

지은이는 책의 말미에서 “난 혼자모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지요. “혼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둘도 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생명있는 모든 것들을 친구 삼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혼자일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노나니, 혼자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권우 / 도서평론가

<백가지 친구 이야기>는 자연의 친구들에 대한 백개의 짧은 글과 그림을 묶은 책이다. 목격적이며 우화적인 판화적기자가 방송사회자인 이와타 겐자부로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구치소에서 쓴 ‘사랑의 정치’ 구상

“사랑은 위대하여/ 완전한 자유의 획득을 위한 석가의 설법도/ 영원한 생명의 확보를 위한 예수의 말씀도/ 현세의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한 공자의 가르침도/ 그 모두 사랑이여라.(장기표의 ‘사랑의 원리’)”

‘사랑과 정치’라는 말들이 과연 어울릴 수 있는 말일까? 30여년간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민주화운동의 선두에서 활동해 온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놀랍게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형성사)라는 책에서 장 원장은 “나의 오랜 기간 민주화운동과 정치활동은 내 나름대로 정당한 ‘사랑의 철학’을 실천해 온 과정이었다”고 술회한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

장기표 지음
형성사 / 7천원



신문명 경제신문·국가비전도 펴내

젊은 시절 부산 태종사 도성스님 문하로 출가하기도 한 장 원장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과 정치를 해왔다”며 “정치는 사랑이다”고 정의한다.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는 1986년,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80년 5.17 계엄하에

서 수배중인 그를 오랫동안 보호해 준 님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쓴 글모임이지만, ‘사랑의 정치’를 위한 그의 오랜 구상이 담겨있다. 장 원장은 이 책과 함께 <신문명 경제신문><신문명 국가비전>(신문명도 펴냈다. <신문명 경제신문>은 지식과 기

술과 정보가 생산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잘못 대응하면 대량실업과 빈부양극화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복지우선의 경제정책을 펴야 함을 강조한 책이다. <신문명 국가비전>은 정보화와 세계화란 정보문명시대를 맞아 민족도약과 국민복지와 사회평화를 이룰 이념과 기본정책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저서다.

김재경 기자

법보시나 불사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절첩식 10×25cm
표지 : 고급 T/C 하드커바 금박
내지 : 매직칼라 연미색 120g

표지에 사찰 이름을 금박으로 넣어 드립니다.
주문후 7-10일 정도 걸리며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제작번호 : 국민/ 666801-01-252288
우리/ 116-07-085001
우체국/ 104216-02-138824 예금주 조재호

문의전화 : (080)662-8522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경은 세계적으로 사랑할만한 우리의 전통문화입니다. 사경은 기도이며 수행이고 참회이며 복을 짓는 일이며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독송하며 서사(書寫)하는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금강경은 예로부터 사경경전의 제일로 꼽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에게 권합니다.

사십 구제를 모시면서 사경을 하면 왕생의 요결이 됩니다. 사경한 것은 사십 구제날 고인을 위해 불살라 줍니다. 조상님이나 임신중절한 태아의 천도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천도시식하는 날 함께 불살라 영가에게 공양합니다. 자식의 입사나 남편의 승진을 위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을 부처님 전에 올리고 감사공양을 올립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도 사경기도를 하거나 병고퇴치를 위해서 사경기도를 합니다. 사경한 것은 불전에 올립니다. 탐이나 법당을 세우거나 새롭게 부처님을 모실 때 사경불사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사경불사를 올려야 합니다.

TEL/(032)662-8522 FAX/(032)662-8524

양지바른곳